

KIEP

오늘의 世界經濟

World Economy Update

제 04 - 04 호 / 2004년 2월 19일 발간

미국-호주 FTA 평가 및 시사점

작성자 : 최윤정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 3460-1039】

主要內容

- 미국과 호주는 지난 2월 8일 호주-미국 FTA(이하 AUSFTA)를 2005년 출범시키기로 합의함.
 - 동 FTA 체결로 약 99%에 이르는 제조업제품의 무관세화가 실현되어 제조업제품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對호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한편 쟁점이 되었던 호주의 원당(sugar)이 협상에서 제외되고 쇠고기도 18년의 관세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는 등 민감분야에 대한 고려로 호주측은 주력산업인 농축산 분야 수출증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 AUSFTA는 농축산 분야를 사실상 제외하는 등 완전한 시장개방을 주장해온 미국과 호주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든 미국 경제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해온 호주 경제의 성장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호주의 AUSFTA를 비롯하여 최근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FTA 참여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대외 교역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FTA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향후 FTA 협상에 대비하여 농업분야 등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 대한 개혁 및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협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 개요

- 미국과 호주간의 FTA는 1992년 미국이 제안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진전이 없었으나 2003년 3월부터 양국 정상¹⁾ 및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협상이 활성화되었음.
- 그러나 오랜 준비기간과 양국간의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 협상은 주요 민감품목인 원당²⁾, 쇠고기, 낙농업제품 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었음.
 - 미국은 원당, 쇠고기, 낙농업제품 등을 FTA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거나 선거가 끝나는 시점까지 협상을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호주에 의약품복지계획 개선과 신규투자 등 제도의 개선을 요구함.
 - 특히 원당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미국내 상당수 국회의원 및 원당 생산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무역대표부 Mark Zoellick 대표는 호주와의 FTA 협상 개시에 앞서 일체의 시장접근 확대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한 농축산물에 대한 의견 접근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지난 1월 2주간의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농축산물 시장 보호를 위해 제조업 분야의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었음.
 - 미국의 제조업협회, 미상공회의소 등은 강경한 소수 이해집단에 밀린 정부의 특정 품목 제외 방침이 그동안 고수해온 전 분야의 완전한 자유화 정책에 어긋난다며 변형된 FTA 체결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
- 이에 협상 종료일인 2월 8일 양국 정상간의 전화통화에서 호주측이 농축산업 분야에서 전폭적인 양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AUSFTA가 극적으로 타결됨.

1) 양국 정상은 2003년 10월 APEC 정상회의의 참석차 방문한 태국에서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FTA를 최대 우선과제로 추진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음.

2) 미국으로부터 쿼터제한을 받고 있는 호주의 對美 원당 수출량은 2003년 80,000톤이었으며, 2004년에는 87,402톤 또는 미국 원당 수입의 8%까지만 수출이 가능함. 이는 쿼터제한을 받지 않던 1980년 후반 80만 톤에 달하던 원당 수출량의 10% 수준으로, 동 쿼터제는 호주산 원당의 對美 수출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음.

- 미국 농산물시장 보호와 제조업 제품의 무관세를 특징으로 하는 금번 AUSFTA는 호주보다는 미국에 유리한 협정이라고 볼 수 있음.
- 미국의 對호주 수출품의 93%를 차지하는 제조업 품목의 99% 이상이 관세인 하 또는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미국의 제조업 관련 종사자가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 반면 호주는 원당이 협상에서 제외되고 소고기와 낙농업제품의 對美 수출은 미국 전체 수요의 0.17%에 해당하는 쿼터 증가에 그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외조항을 달고 있어, 호주의 對美 농축산물 수출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2. 추진배경

- 전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자유무역을 주도하는 미국과 호주는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FTA를 추진키로 합의함.
- 특히 미국은 제조업제품의 對호주 수출 증가 추세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호주는 미국의 거대한 농산물 시장을 고려하여 對美 농산물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컸음.
- 2002년 기준 호주는 미국의 13대 수출대상국(유럽국가들을 EU로 계산 시에는 9대 수출대상국)으로서 호주와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규모는 연간 약 280억 달러(호주는 미국산 상품의 최대시장), 투자는 600억 달러 규모임.
- 미국 경기가 부진했던 지난 1998~2002년간 미국의 對세계 수출이 0.8% 감소된 반면, 동기간 對호주 수출은 6.4% 상승하여 매년 50~7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왔음.
- 호주는 항공기,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컴퓨터, 전자제품, 화학제품, 목재 및 제지류 등 미국 주요 제조업 분야의 핵심적인 수출 시장임.
- 미국의 50개 주가 모두 호주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워싱턴, 캘리포

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미시간, 뉴욕, 플로리다 등 미국 정치, 경제에서 중요한 상태에서 對호주 교역비중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미국은 일본에 이어 호주의 제2의 수출시장(수입은 1위)으로 호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호주는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해왔음.

- 2003년 호주의 對美 수출액은 전년대비 3%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8% 증가하여 호주의 對美 무역수지 적자는 116억 호주 달러(9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양국간 무역불균형은 심화되는 양상임.

<표> 미국의 對호주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품목	금액		품목	금액	
	2002	2003		2002	2003
기계 및 운송기기	8,087 (61.8)	6,837 (56.9)	식품 및 산 동물	1,439 (21.1)	1,241 (21.2)
화학 및 관련제품	1,637 (12.5)	1,654 (13.8)	기계 및 운송기기	1,159 (17.0)	899 (15.4)
미분류 제조업제품	1,462 (11.2)	1,437 (12.0)	미분류 제조업제품	722 (10.6)	624 (10.7)
재료에 따라 분류한 제조업제품(고무, 종이, 섬유 등)	706 (5.4)	686 (5.7)	기타 상품 및 취급물	525 (7.7)	616 (10.5)
기타 상품 및 취급물	553 (4.2)	592 (4.9)	음료 및 담배	491 (7.2)	582 (10.0)
식품 및 산 동물	275 (2.1)	495 (4.1)	재료에 따라 분류한 제조업제품(고무, 종이, 섬유 등)	765 (11.2)	576 (9.9)
광물성 연료 및 운활류	161 (1.2)	116 (1.0)	화학 및 관련제품	380 (5.6)	471 (8.1)
원자재(연료 제외)	112 (0.9)	107 (0.9)	원자재(연료 제외)	680 (10.0)	416 (7.1)
음료 및 담배	85 (0.6)	82 (0.7)	광물성 연료 및 운활류	656 (9.6)	411 (7.0)
각종 유지류	6 (0.0)	4 (0.0)	각종 유지류	6 (0.1)	6 (0.1)
총계	13,084 (100)	12,009 (100)	총계	6,824 (100)	5,84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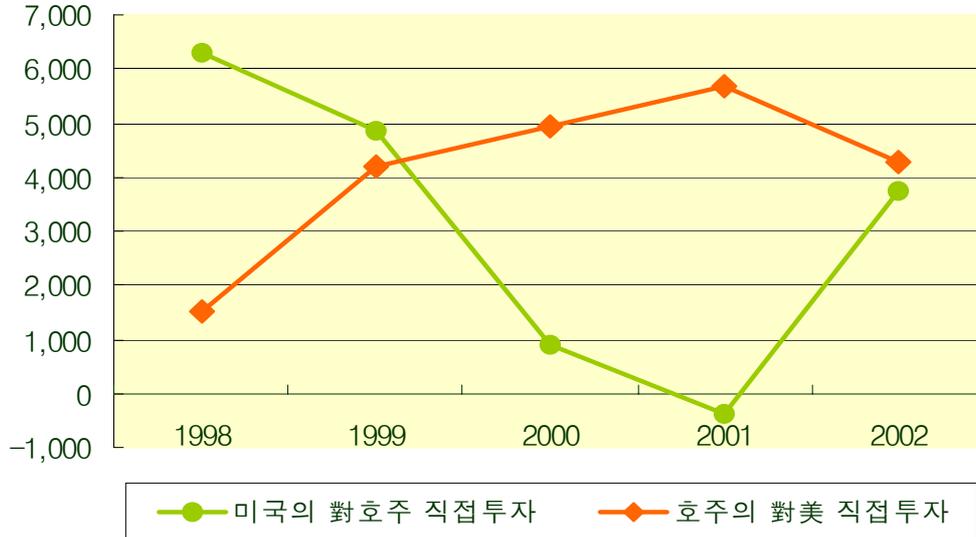
주: 품목분류는 SITC 1단위 기준, ()는 비중
자료: 美 상무부

- 그러나 호주의 주력 수출상품인 쇠고기 등 농축산품에 대한 관세 및 쿼터의 철폐로 불균형한 양국 교역구조의 점진적인 개선이 예상된다.
- 양국간 FTA 체결시 기대 효과에 대한 연구³⁾ 결과, 양국 모두에게 복지(가계 소비 수준으로 측정), 생산(GDP로 측정) 등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FTA 체결시 호주의 복지수준은 2006년 0.3% 증가하여 2020년에는 0.5% 증가하고, 미국은 2006년 0.016%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됨.
 - 호주 GDP는 2006년까지 0.33% 추가 증가 효과를 가져오는 등 매년 20억 달러의 추가적인 생산증가가 예상된다.
 - 호주와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은 현재 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제조업 제품의 99.5%에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제조업 부문에서만 연간 20억 달러의 수출액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AUSFTA를 통해 투자절차 간소화 및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경우 양국간 투자도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01년 경기부진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미국의 對호주 직접투자는 2002년 3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미국 경기회복과 더불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3)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1. *Economic impacts of an Australia - United States Free Trade Area*.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그림> 미국-호주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경제적 중요성 외에도 AUSFTA 체결의 저변에는 양국간의 오랜 우방관계를 공고히한다는 정치적 의지도 내포되어 있음.
- 미국은 아프간전 및 이라크전에서 보여준 호주의 전폭적인 지지에 보답해야 하는 상황임.
 - 호주에서는 9.11테러 사태 이후 미국 주도의 반테러 전쟁에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해오는 등 미국과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FTA 체결에 낙관적인 전망을 해왔음.
- 한편 호주는 금년 총선(원래 2005년 4월이나 금년 하반기로 앞당겨질 전망)에서 하워드 정부가 FTA를 최대 업적으로 내세운다는 전략임.
 - 호주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2003년 10월 태국과 FTA 체결에 합의) 등 아시아 주요국들과 FTA를 추진 중이며, 미국과의 FTA 체결이 최대 과제였음.

3. AUSFTA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미국

- 미국의 對호주 수출품의 93%를 차지하는 제조업 품목은 99% 이상이 관세인 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입게 될 것임.
 - 동 관세 철폐의 효과는 연간 미국 제조업제품 수출에 20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자동차 및 부품, 정보통신제품, 전자기기, 비전자기계류, 화학제품, 플라스틱, 가공된 금속제품류, 건설기기, 종이 및 제지류, 가구 및 내부시설물, 의약 및 과학기기 등 미국 제조업의 핵심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
- 또한 AUSFTA는 미국 농업분야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 가공식품, 수프 및 빵류, 과일 및 야채류, 건조양파, 과일 및 야채주스, 건조자두, 감자, 아몬드, 토마토, 체리, 건포도, 올리브, 옥수수, 호두 등 4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對호주 농산물 수출은 모두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될 것임.
 - 돼지고기, 감귤류, 사과, 견과류 등도 기존에 장벽으로 작용했던 식품검역절차의 간소화로 對호주 수출 확대가 예상됨.
- 한편 각종 보호장치의 마련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미국 농축산 분야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AUSFTA는 호주산 원당, 쇠고기, 낙농업제품의 수입에 엄격한 쿼터를 할당하여 미국의 농축업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음.
 - 원당은 기존의 할당량을 동결하여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호주의 對美 최대 수출품목인 쇠고기에 대해서는 호주 수입은 미국 연간 쇠고기 생산의 0.17% 또는 수입의 1.6% 이하로 제한하고, 쿼터는 18년에 걸쳐 18.5% 확대한 다음 관세 및 쿼터를 완전 철폐기로 하는 한편 세이프가드 발동도 가능토록 조치
- 낙농업제품은 미국의 연간 낙농업제품 생산의 0.17% 또는 총 낙농업제품 수입액의 2%를 기준으로 설정

□ 서비스 및 투자분야 개방 확대

- 미국은 통신, 운송,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관광, 에너지, 건설, 엔지니어링, 금융서비스, 보험, 시청각 오락산업, 교육, 환경 등 호주 서비스시장 전 분야에 걸쳐 전폭적인 시장 접근이 가능하게 됨.

나. 호주

□ 호주의 제조업 제품(2003년 58억 호주달러 규모) 중 97% 이상이 협상 발효일로부터 미국시장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동 분야의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 운송장비 및 자동차 관련제품을 중심으로 제조업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

- 소형 상업용차량(light commercial vehicles)에 대한 25% 관세 철폐
- 미국 승합차 시장 전면 개방 (2002년 호주는 미국에 5억 호주달러 규모 수출)
-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곧 철폐 예정 (2002년 호주는 미국에 3억 호주달러 규모 수출)
- 선박 수리 및 유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50% 관세도 철폐

- 또한 연간 2,700억 달러 규모의 美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함.

□ 농업 및 식품가공업 분야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66%의 농산품에 대한 관세가 즉각 철폐되고 4년내 9%의 농산품도 추가로 관세를 철폐할 예정
- 현재 연간 37만 8,000천 톤으로 정해진 쇠고기 수입쿼터가 18년에 걸쳐 18.5% 확대되는 한편 양과 염소 등도 점진적인 관세 철폐로 4년내 모두 무관세화
- 낙농업제품은 현재 4,050만 호주 달러에서 내년도 5,500만 호주 달러로 확대 예정
- 기타 오렌지, 망고, 딸기, 토마토 등 원예작물, 밀 등의 곡물류 및 캔참치를 비롯한 각종 수산식품 등 식료품에 대한 관세는 최대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완전 철폐 예정

□ 또한 호주의 서비스업자들은 미국내에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임.

□ 호주 정부는 AUSFTA 체결 이후 미국의 관세 인하 등으로 對美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유리한 투자 조건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보건정책, 외국인 신규투자시 검토 절차, 시청각분야, 검역 및 식품위생 체제 등 호주 경제에 중요한 분야는 보호한 것으로 평가함.

4. 평가

□ 미국 농산물시장 보호와 제조업 제품의 무관세를 특징으로 하는 금번 AUSFTA는 호주보다는 미국에 유리한 협정이라고 볼 수 있음.

- AUSFTA는 미국이 캐나다 이후 선진국과는 처음 체결하는 것으로써 미국이 기체결한 FTA 중 관세절감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며, 미국의 제조업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의 對호주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항공기 및 부품(43억 달러), 통신기기(9억 달러), 측량 및 제어기기(8억 달러) 등 하이테크놀로지 제품은 무관세로 호주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4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미국 농산물도 협정발효 즉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현재 5%에 불과한 농축산물의 對호주 수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호주는 원당이 협상에서 제외되고 소고기와 낙농업제품의 對美 수출은 미국 전체 수요의 0.17%에 해당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의 쿼터 증가에 그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외조항을 달고 있어 실질적으로 호주의 對美 농축산물 수출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현재 4,050만 호주달러(3,090만 달러)인 낙농업제품의 對美 수출량 쿼터는 AUSFTA가 발효되면 연간 9,500만 호주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여전히 미국 낙농업제품 시장의 0.2%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임.
- 따라서 호주는 對美 수출의 38%를 차지하는 쇠고기(16억 달러)를 비롯한 일차산품보다는 알루미늄, 해산물, 종이 및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분야(2003년 38억 달러 규모)의 수출 확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임.
- 양국의 의회승인을 거쳐 2005년부터 발효될 동 협정은 농축산 분야를 사실상 제외하는 등 완전한 시장개방을 주장해 온 미국과 호주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상태로 종결되었음.
-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부시 행정부가 호주와의 FTA 체결을 위해 강

경한 이해집단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美 대선이 호주와의 FTA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됨.

- 미국과 호주에서 원당 업계는 중요한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바, 주요 재배지인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미 대통령 선거에서, 호주의 퀸스랜드주는 호주 총선에서 각각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美 원당 업계는 미국 정부가 CAFTA 협상에서 원당에 1.5% 이하 시장접근을 허용한 데 대해 반발하는 한편, 금번 호주 FTA 협상에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조치에 강력히 반대하였음.

○ 한편 호주의 원당 업계도 원당이 FTA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하워드 정부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호주가 다소 불리한 FTA를 서둘러 체결하게 된 배경에는 촉박한 협상시일과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 대한 고려와 함께 타결 실패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농축산업 분야를 양보한 대신 정부의 의약품 보조정책과 미디어 산업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정책이 오는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호주정부와 여당은 원당을 양보한 데 대한 여론의 반발에 대해 국익차원의 결정이었음을 설득해야 하나, 동 이슈를 총선에 불리하게 이용하려는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야 함.

○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FTA 비준은 특히 상원에서 여당의 의석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난항이 예상됨.

□ 한편 금번 AUSFTA는 예외 없는("no exception") 시장의 전면개방을 주장해 온 미국의 기존 FTA 정책기조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향후 특정 품목을 협상

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결정은 경쟁력 있는 미국상품의 외국시장접근 기회를 축소시킬 수도 있고, 그동안 무역자유화를 주창해 온 미국의 신뢰도에도 일정 부분 손상을 준 것으로 평가됨.

- 양국의 관세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나, 미국의 원당 및 낙농업제품 수입장벽은 높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따르면 미국의 원당 및 낙농업제품의 장벽은 각각 80%, 24%의 관세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미국 정부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음에도 정치적 이익집단으로 영향력이 큰 국내 원당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쿼터할당과 가격보조를 통해 세계 시세(파운드 당 6센트)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인 파운드당 20센트로 책정해왔음.

□ 이처럼 완전한 시장개방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AUSFTA를 통해 호주의 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 해 하반기 이후 회복세에 접어든 미국 경제 또한 강력한 경제성장의 동력을 얻게 되었음.

- 특히 미국의 경우 현재 對호주 수출의 93%를 차지하는 제조업 전품목이 호주 시장에 무관세로 진출하게 됨으로써 최근 위축되어 있는 제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5. 시사점

□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의 FTA 체결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주요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FTA 체결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미국은 WTO 협상과 북미지역 자유무역협정인 FTAA 뿐만 아니라 양자간 FTA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⁴⁾, 호주 역시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아

4)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이상 NAFTA), 요르단, 칠레, 싱가포르와 FTA를 맺고 있음. 그리고 미국은 최근 중앙아메리카 FTA(CAFTA)를 체결했고 모로코와 FTA 완결단계임.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과의 협상이 2004년에도 계속될 것임. 가장 최근에는 CAFTA에 도미니카 공화국을 포함시키는 협상을 시작했고 지난 1월 바레인과의 협상을 시작했음.

시아 주요국들과 FTA 체결을 추진 중임.

- 미국과 호주의 제조업 무관세를 골자로 하는 금번 FTA 체결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제조업품목에서 한국 상품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미국과 호주는 각각 한국의 1위 및 12위의 수출대상국이며,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의 제조업 제품임.

- 현재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으로 수출로는 6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미 주력수출상품인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은 호주 상품과의 경쟁 심화가 예상됨.

- 호주와 미국은 승합차, 소형 상업용차량(현 관세율 25%)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기로 했음.

- 아울러 한국의 대호주 주력수출상품인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종이제품 등은 미국 상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마지막으로 금번 미국과 호주의 협상에서 알 수 있듯이 FTA 협상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로 국내외 다양한 이익단체와의 의견 조율이 필수적임.

- 이를 통해 국내 소수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행사에 굴복하여 국가경제 전체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고 최대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FTA를 체결토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농업개방 문제는 FTA 협상에서 큰 과장을 물고올 것이므로 한국은 사전에 농업분야 개혁과 적절한 지원책 강구를 통해 개방에 대비하여 협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며, 태국,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에쿠아도르와의 FTA 협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